ISSN 2092 - 8661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10 | No.205





대외 여건 동향

세계 경제 | 국내외 금융

국내 경제·산업 동향

국내 경기 | 소비·고용 | 투자 | 산업생산 | 물가 | 수출입

주요 산업별 동향

자동차 | 조선 | 일반기계 | 철강 | 정유 | 석유화학 | 섬유 | 가전 | 무선통신기기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이슈 포커스

EU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일반기계 산업 영향

KIET 산업연구원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10 | No. 205

KIET 산업연구원

2026. 10 | No. 205

차 례

1. 대외 여건 동향 ····· 5
(1) 세계 경제 ····· 5
(2) 국내외 금융 ····· 9

2. 국내 경제·산업 동향 ····· 15
(1) 국내 경기 ····· 15
(2) 소비·고용 ····· 20
(3) 투자 ····· 22
(4) 산업생산 ····· 25
(5) 물가 ····· 27
(6) 수출입 ····· 29

3. 주요 산업별 동향 ····· 35
(1) 자동차 ····· 35
(2) 조선 ····· 36
(3) 일반기계 ····· 38
(4) 철강 ····· 39
(5) 정유 ····· 41
(6) 석유화학 ····· 42
(7) 섬유 ····· 44

(8) 가전 ····· 45
(9) 무선통신기기 ····· 46
(10) 반도체 ····· 49
(11) 디스플레이 ····· 50

4. 이슈 포커스 ····· 52
(1) EU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일반기계 산업 영향 ····· 52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6. 10 I No. 205

발행인 권남훈
편집인 이두희
발행일 2026년 10월 20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003
인쇄처 (주)프리비

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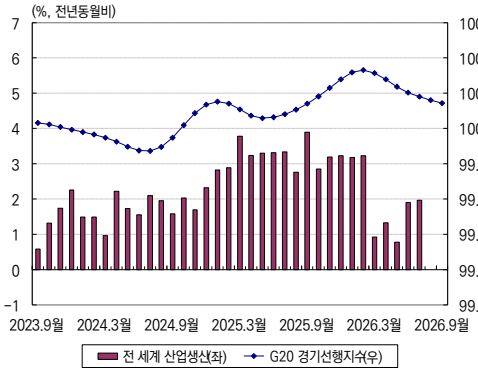
□ 세계 선행지수 올해 2~3분기 동안 하락세, 전 세계 산업생산 증가세 미약

● (세계 경제) 세계 실물경기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지난 2분기부터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 생산 증가율이 하반기 들어서도 연초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 G20 경기선행지수는 선진권에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약해지고, 개도권은 브라질과 중국 등지에서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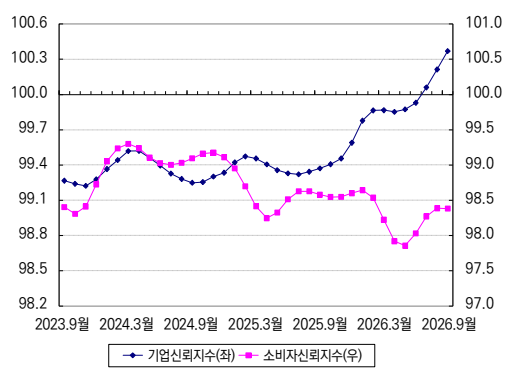
세계 주요 경제지표

(a) 경기지표 추이



자료: OECD, CPB.

(b) 체감지표 추이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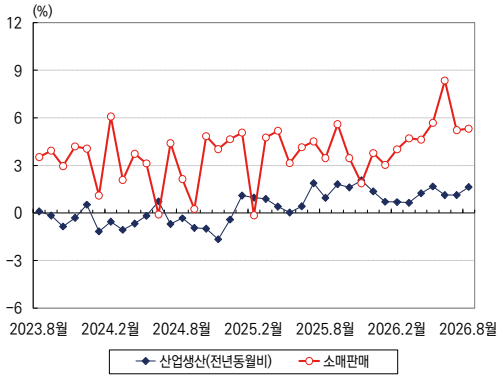
- 전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이 7월 현재 연초 수준(3%대)을 하회하는 가운데 선진권이 전년 동월비 2%대 수준까지 회복한 반면, 신흥권은 1%대로 미미한 수준
- OECD 국가들의 체감지표는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신뢰지수가 7월부터 기준치(100)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신뢰지수는 연초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는 상황

● (미국 경제) 8월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수출입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적자 규모는 전월보다 약간 축소

- 미 연준이 9월 FOMC 회의에서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향후 유가 및 인플레 변화에 귀추가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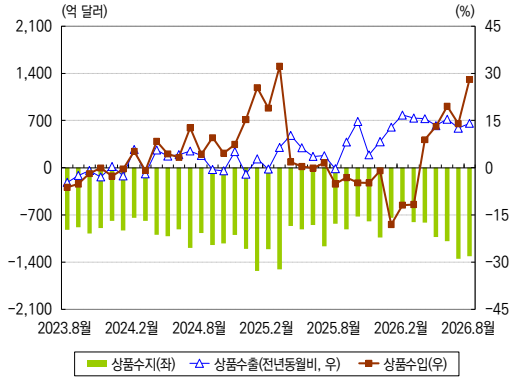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미국 연준(FRB), 미국 상무부(Census).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미국 상무부(C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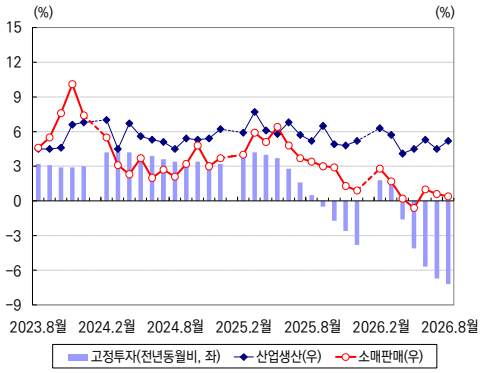
● (중국 경제) 8월 생산을 제외하고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가 이어지는 등 내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상품수지는 수출입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흑자 기조가 지속

- 중국 정부는 현 경제 운영과 관련해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 및 향상을 도모하고, 올 성장률 목표(4.5~5%) 달성을 위해 내수 진작과 대출 확대 등 경기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 (일본 경제) 8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둔화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이고, 무역수지는 수출 둔화와 수입 증대가 이어지면서 적자 규모가 연초 이후 최대치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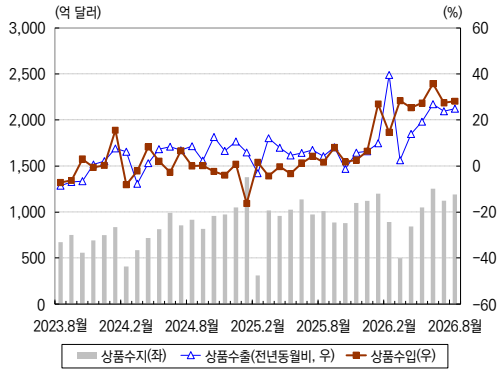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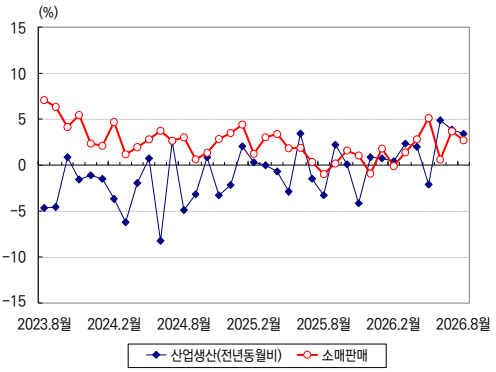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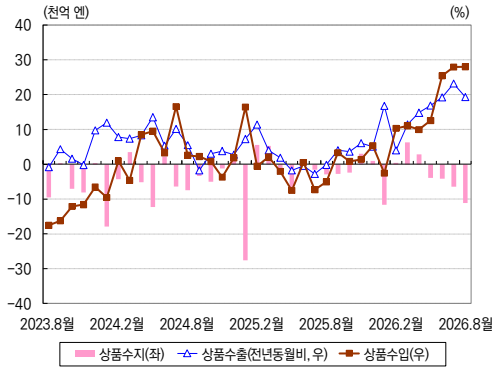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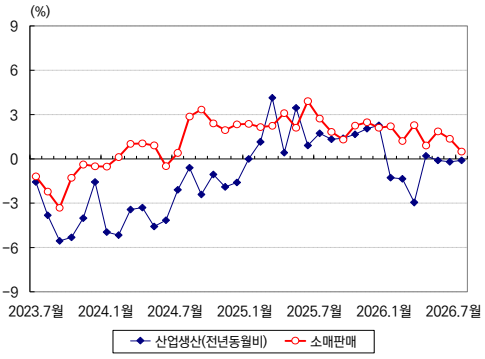
- 일본은행이 9월 회의에서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단기정책금리 1.25%, 1995년 9월 이후 최고치)한 데 이어 향후 물가 정세에 따라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

● (유로 경제) 7월 역내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미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수출입 증가세가 상당폭 둔화되면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

- 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에 3.8%(2023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지는 등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한편, 독일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0.5%에서 1.3%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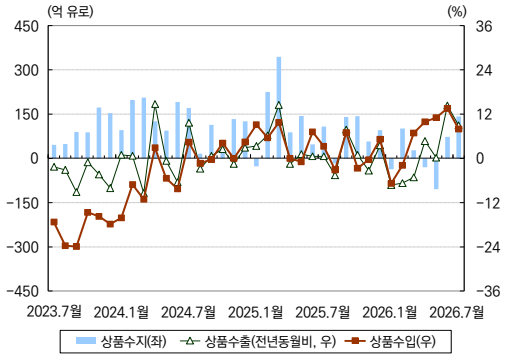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a) 실물지표 추이



자료: 유로통계기구(Eurostat).

(b) 무역지표 추이



자료: 유로통계기구(Eurostat).

세계 주요국의 실물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전체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3]
미국	실질GDP[1]	3.0	2.3	2.0 (0.2)	2.6 (2.5)	2.2 (2.2)				
	산업생산	-0.7	1.1	1.7	0.7	1.4	1.1	1.1	1.6	0.0
	소매판매	3.0	3.7	3.1	3.9	6.2	8.3	5.2	5.3	1.2
	무역수지[2]	-12,009	-12,346	-2,557	-2,135	-2,936	-1,089	-1,354	-1,314	-1,321
중국	실질GDP	5.0	5.0	4.5	5.0	4.3				
	산업생산	5.7	5.9	5.0	5.9	4.6	5.3	4.5	5.2	-
	소매판매	3.5	3.8	1.7	2.1	0.2	1.0	0.6	0.4	-
	고정투자	3.2	-3.8	-3.8	1.7	-5.7	-5.7	-6.7	-7.2	-
	무역수지(억 달러)	9,926	11,802	3,098	2,596	3,152	1,255	1,125	1,191	-
일본	실질GDP	0.1	1.2	0.4	0.6	0.9				
	광공업생산	-2.6	-0.3	-1.0	1.2	1.7	4.9	3.9	3.4	-1.7
	소매판매	2.5	1.4	0.5	1.1	2.8	0.6	3.7	2.7	-1.2
	무역수지[2]	-56,284	-29,296	1,578	-4,980	-5,250	-4,123	-6,449	-11,119	-8,406
유로존	실질GDP	1.1	1.3	1.1	0.6	1.2				
	산업생산	-3.0	1.7	2.0	-1.9	0.0	-0.2	-0.1	-	0.0
	소매판매	1.3	2.4	2.3	1.9	1.4	1.3	0.5	-	-0.6
	무역수지[2]	1,518	1,346	295	91	-63	73	142	-	50

자료: 미국 연준·상무부, 일본 내각부·경제산업성·재무성, 유로통계기구(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주: 1) 괄호 안 수치는 전기비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통화 1억 기준(비계절조정치), 3) 계절조정치 기준(무역수지는 규모).

(2) 국내외 금융

1) 금리·환율

□ 9월 미국과 국내 금리, 연준 금리 인상과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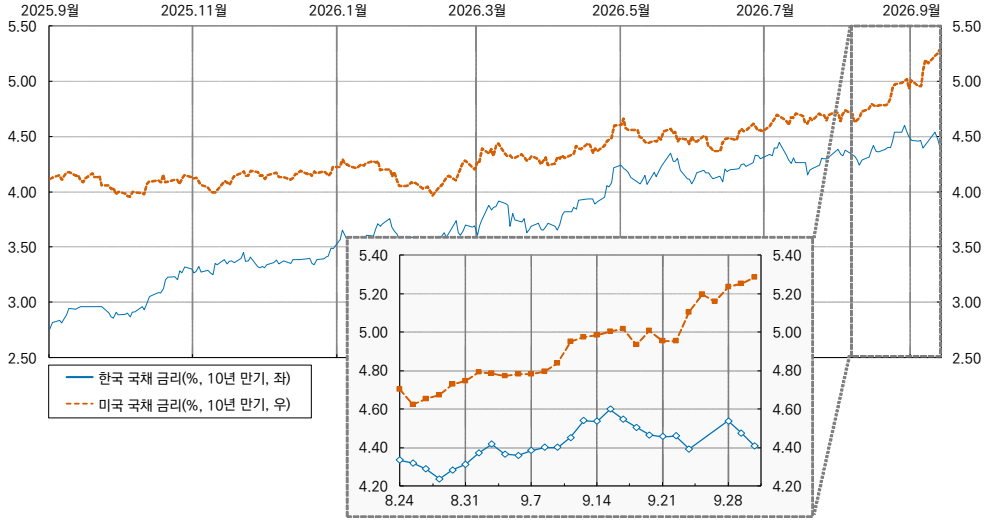
● (미 국채 금리(10년 만기)) 중동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근원물가 상승, 금리 인상 기대로 5%를 상회하였고, 월 후반 미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폭을 확대하여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9월 말 미 국채 금리(10년)는 5.29%로, 전월 말 대비 0.54%포인트 상승

● (국내 국고채 금리(10년 만기)) 국제유가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동조하여 월 중순 4.6%까지 상승하였다가 주요국 장기금리와 유가 하락으로 반락하였으며, 추석 연휴 직후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동조하여 반등하였으나 월말 국고채 발행 축소 기대와 WGBI 관련 자금 유입으로 상승폭 축소

- 9월 말 국내 국고채 금리(10년)는 4.41%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월별 국내외 금리 동향

단위: %

	2025	2026						
	연평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한국 국고채(3년)	2.57	3.04	3.55	3.60	3.73	3.70	3.76	3.84	4.01
한국 국고채(10년)	2.89	3.45	3.88	3.92	4.07	4.09	4.26	4.31	4.41
미국 국채(10년)	4.23	3.96	4.32	4.39	4.44	4.44	4.71	4.75	5.29
일본 국채(10년)	1.56	2.11	2.35	2.52	2.66	2.69	2.79	2.94	3.05
독일 국채(10년)	2.62	2.65	3.01	3.03	2.93	2.91	3.20	3.32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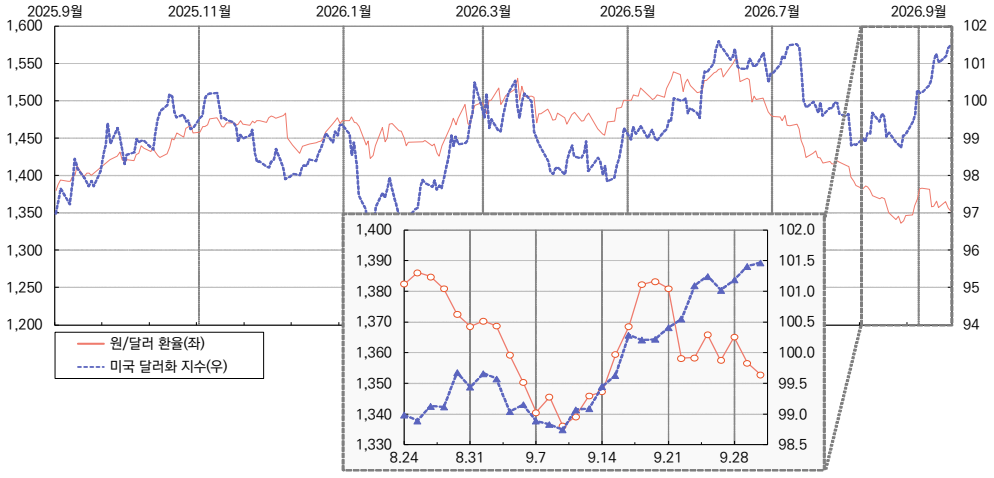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주: 월별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 9월 달러화는 강세 전환,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

● (달러화) 월초에는 미 고용지표 부진과 연준 이사의 완화적 발언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금리 인상 기대 강화와 FOMC의 매파적 결과, 중동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 전환하여 100을 상회

- 9월 말 엔/달러 환율은 157.4로 전월 말 대비 1.44% 하락, 달러/유로 환율은 1.13으로 2.59% 하락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월별 주요 환율 동향

	2025	2026							
	연평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러화 지수	100.8	97.6	99.8	98.1	98.9	101.2	99.8	99.4	101.5
달러/유로	1.13	1.18	1.16	1.17	1.17	1.14	1.15	1.16	1.13
엔/달러	150.0	156.1	158.7	156.6	159.3	162.6	157.6	159.7	157.4
위안/달러	7.17	6.86	6.90	6.83	6.77	6.79	6.75	6.72	6.70
원/달러	1,421.2	1,439.7	1,530.1	1,483.3	1,507.9	1,549.4	1,424.0	1,368.6	1,352.8

자료: Datastream, 한국은행.
주: 월별 환율은 월말 종가 기준.

● (원/달러 환율) 월초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입, 엔화 강세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로 반등하였고, 월말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와 일본의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뉴욕 연은 총재의 완화적 발언 등으로 재하락

- 9월 말 원/달러 환율은 1,352.8로, 전월 말 대비 1.2% 하락

2) 유가·원자재

□ 9월 국제유가, 미·이란 해상충돌 및 사우디 석유시설 피격으로 3주 상승 후 수요 감소 우려 등으로 하락 전환

● (국제유가) 9월 국제유가는 미·이란 간 군사충돌 재확대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수송 불안,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람코 석유시설·동서 송유관 공격,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연쇄 공격,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등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며 3주 연속(1~3주) 상승세를 이어갔고, 4주 차에는 미 경유 수출 제한 가능성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우려와 중동 산유국 원유수출 회복으로 하락 전환

- (상승 요인) (9월 1주)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 예고 및 대화 재개 기대 약화, 미·이란 군사 공방 재개 및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강화·걸프 석유수출 차단 경고. (9월 2주) 미·이란 유조선 상호 공격에 따른 호르무즈 통항량 급감, 후티 반군의 사우디 남부 아람코 석유시설 공격, OPEC+ 7개국의 10월 생산량 동결, EIA의 글로벌 석유재고 감소 지속 전망. (9월 3주) 사우디 동서 송유관 피격에 따른 얀부항 선적 차질, 후티 반군의 하니시 제도

장악 등 홍해 통제력 강화,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정유공장 공격, 걸프국·이란 간 호르무즈 협의 연기. (9월 4주) 미국의 대이란 항공 제재 확산, 후티 반군의 사우디 주요 시설 공격 지속

- (하방 요인) (9월 1주) 푸틴 대통령의 종전 합의 가능성 언급에 따른 러·우 평화협상 기대, 이란의 통항 승인에 따른 이라크 원유수출 확대, 중국 8월 제조업 PMI 위축 국면 지속. (9월 2주) 연준 금리 인상 기대 강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경기·석유수요 둔화 우려. (9월 3주) 아람코의 오만 소하르항 STS 환적을 통한 대체 공급, 연준의 9월 FOMC 정책금리 0.25%p 인상. (9월 4주) 트럼프 대통령의 경유 수출 제한 언급에 따른 미 정유사 원유투입 감소 우려, 중동 산유국 원유수출 전쟁 이후 최고 수준 회복, 미 9월 종합 PMI 5년래 최고치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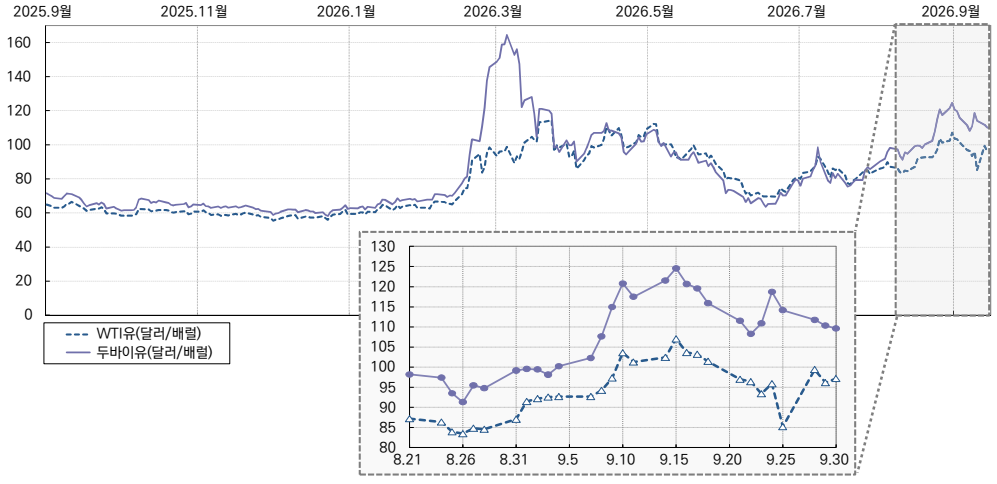
월별 국제유가 동향

단위: 달러/배럴

	2025	2026							
	연평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WTI	65.47	64.44	91.38	100.90	102.05	84.60	79.99	83.90	97.10
두바이	69.36	68.51	126.71	105.30	100.36	79.54	77.39	88.05	111.72
브렌트	68.29	69.41	99.40	102.81	103.84	84.49	84.01	88.07	102.09

자료: Datastream.

국제유가 동향



자료: Datastream.

□ 9월 원자재 가격, 비철금속은 공급차질 우려로 등락 속 반등, 철강원료는 유가 진정·수급 완화로 약세 전환

● (비철금속) 구리는 월초 중동 리스크 재부상과 중국 부동산 부진으로 하락했으나, 칠레 생산 부진과 미국향 물량 쏠림으로 반등한 뒤, 미 금리 인상과 인도네시아 제련소 재가동으로 재차 하락했으며, 월말 중국 재고 감소와 칠레 광산 사고·파업 우려로 다시 상승

- 니켈은 월초 공급과잉과 스테인리스 약세로 하락했으나, 중동발 황 공급 차질, 인도네시아 모로왈리 용수난과 니켈 감산 통지로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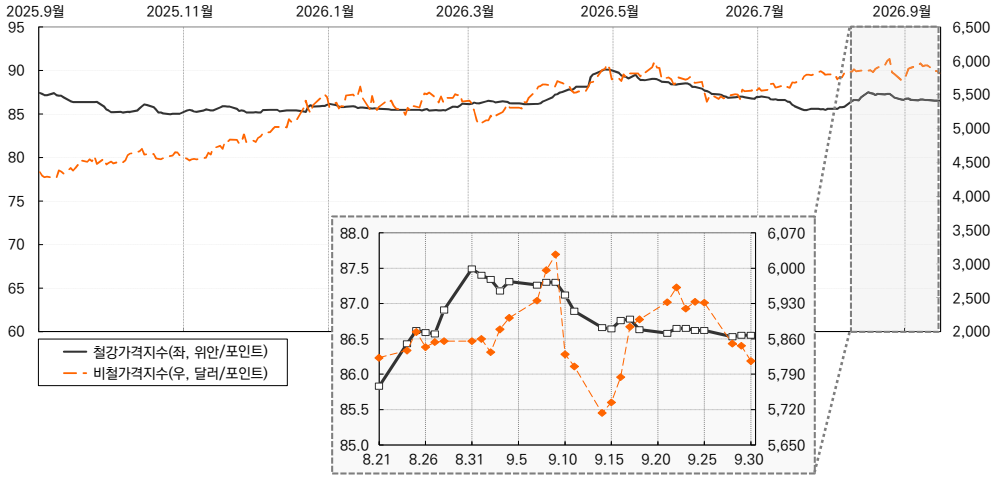
● (철강) 유연탄은 월초 유가 급등과 인도 재고 부족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로 상승했으나, 이후 유가 진정과 인도 자국산 공급 회복, 인도네시아 추가 생산쿼터 승인으로 하락 전환해 월말까지 약세 지속

- 철광석은 월초 태풍으로 인한 항만 차질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상승했으나, 제철소 설비 보수 확대와 호주 파업 우려 완화로 하락했으며, 월말 국경절 대비 구매로 소폭 반등

● (희소광물) 리튬은 월초 LFP 실수요 확대로 상승했으나, 시장 약세 전망에 따른 공급업체 판매가격 인하로 하락 전환한 뒤 월말 보합세 유지

- 코발트는 월초 제한적 거래 속 보합세를 보였으나, 충분한 재고와 구매 관망세로 하락 전환해 월말까지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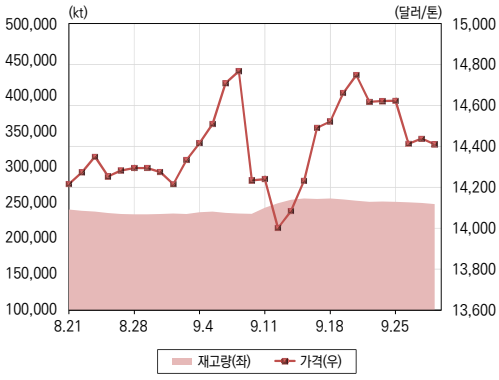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자료: Datastream.

국제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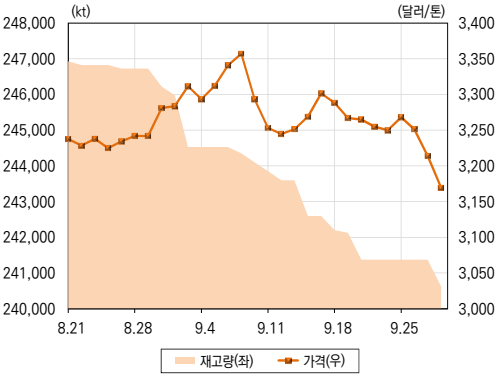
(a) 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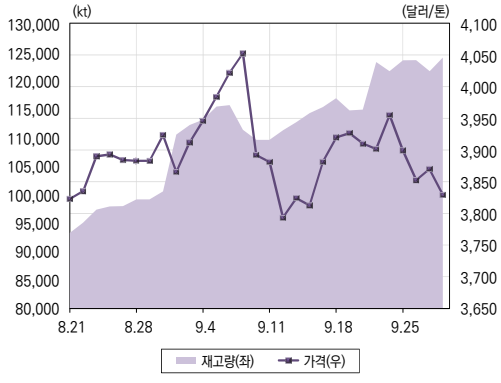
(b) 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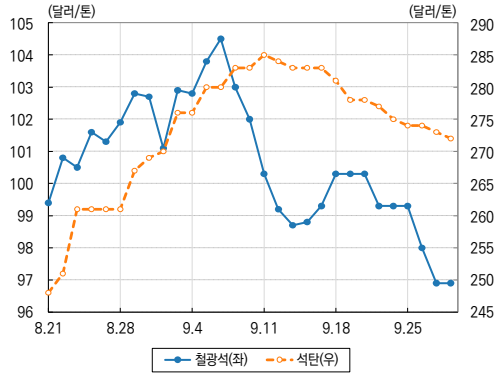
(c)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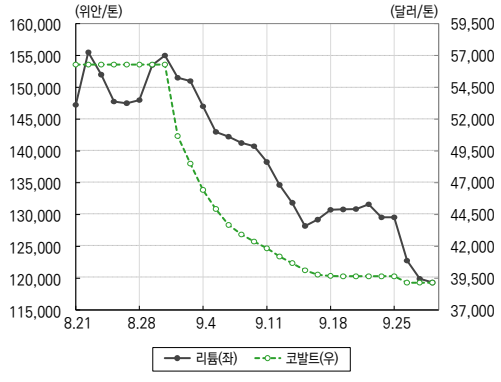
(d) 아연



(e) 철광석·연료탄(철강)



(f) 리튬·코발트(희소광물)



자료: Datastream.

2

국내 경제·산업 동향

(1) 국내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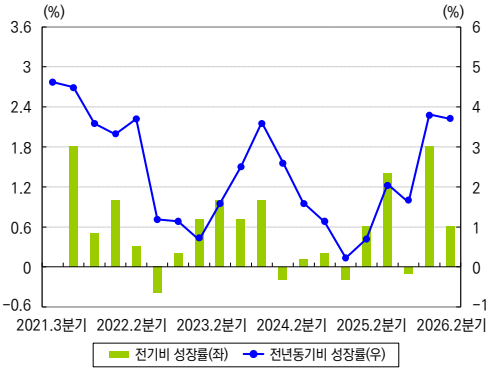
1) 국내 실물경기

□ 2분기 국내 경제, 수출 호조와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며 강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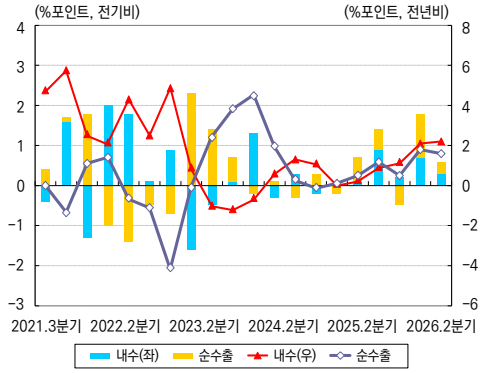
● 지난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내수(전기비 0.3%포인트)와 순수출(0.3%포인트)의 플러스 기여도가 전분기보다 낮아지면서 전기비 0.6%를 기록하고, 전년동기비로는 내수(2.2%포인트)와 순수출(1.6%포인트)의 기여도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3.7% 기록

국내 실질GDP 성장률 추이

(a) 실질GDP 성장률 추이



(b) 내수 및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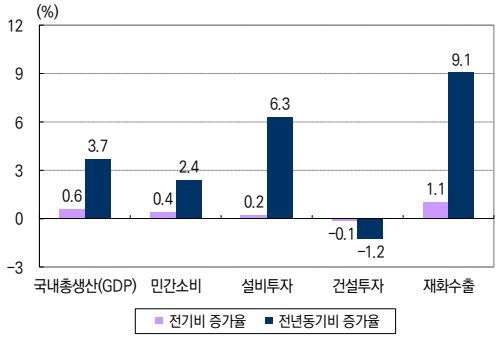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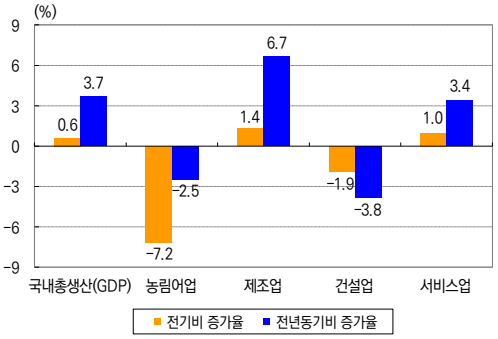
● 주요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재화수출 등의 비교적 고른 증가세와 건설투자 부진 완화세가 특징적이고,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이는 등 농림어업 및 건설업의 약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

국내 지출항목별 및 경제활동별 성장률 동향(2026년 2분기)

(a) 지출항목별 성장률



(b) 경제활동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 8월 산업생산, 건설업 증가 전환과 서비스업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가폭 축소

● 8월 전 산업 생산은 건설업(2.0%)이 2024년 5월 이후 처음 증가 전환되고 서비스업(4.6%)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광공업(-2.2%)이 상당폭 감소하며 증가폭이 상당폭 축소된 전년동월비 1.9% 증가했고, 전월비로는 1.3% 감소

국내 산업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5	2026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전 산업 생산(농림어업 제외)	1.6	1.1	-0.2	2.9	2.9	4.5	3.1	1.9	-1.3
광공업	4.1	2.8	-2.0	2.7	2.1	6.2	4.0	-2.2	-4.8
건설업	-4.6	-16.4	-15.1	-6.0	-4.8	-4.4	-3.4	1.3	2.0
서비스업	1.3	2.0	2.3	4.2	4.6	5.5	3.4	4.6	0.5
공공행정	-0.8	0.1	-0.4	0.8	-1.1	-4.7	2.2	0.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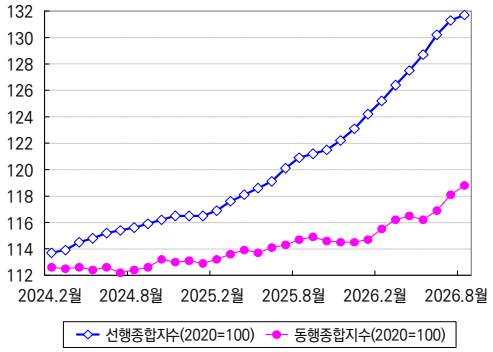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8월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개월 만에 소폭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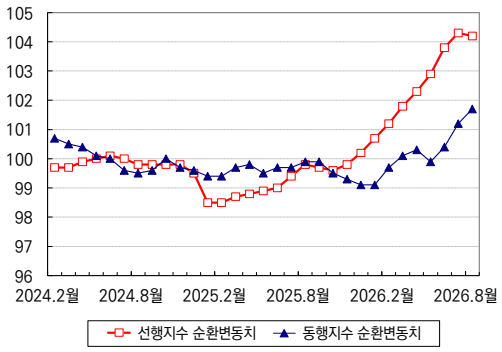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하였으나, 코스피,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

국내 경기종합지수 추이

(a) 선행 및 동행지수 추이



(b) 선행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2) 국내 체감경기

□ 9월 체감경기,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상승, 기업심리지수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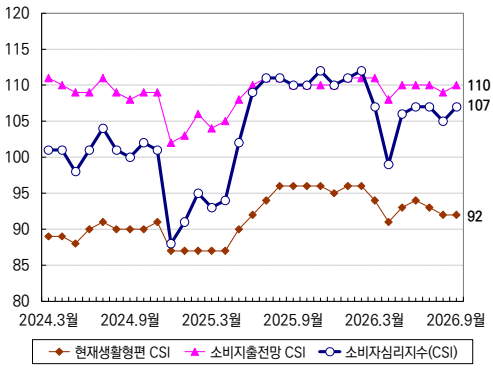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형편지수(92)의 보합과 함께 소비지출전망지수(110)가 소폭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107)

● 기업심리지수는 비제조업지수(98.9)의 상승에도 제조업지수(99.5)가 상당폭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 3개월 만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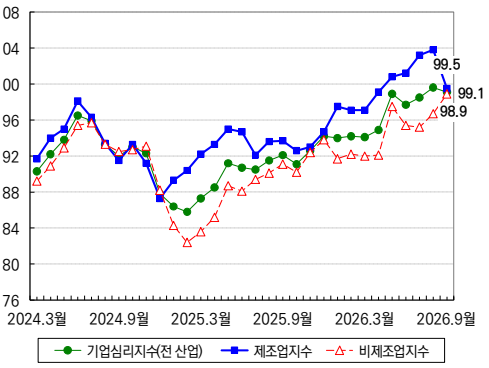
● 업종별 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에서 조선·기타운수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1차금속, 자동차, 섬유, 기타기계·장비 등 다수 업종에서 하락했고,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창고, 숙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시설·지원·임대 등 업종에서 하락한 반면, 도소매와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에서 큰 폭 상승했고, 전문·과학·기술 업종도 상승

국내 주요 체감지표 추이

(a)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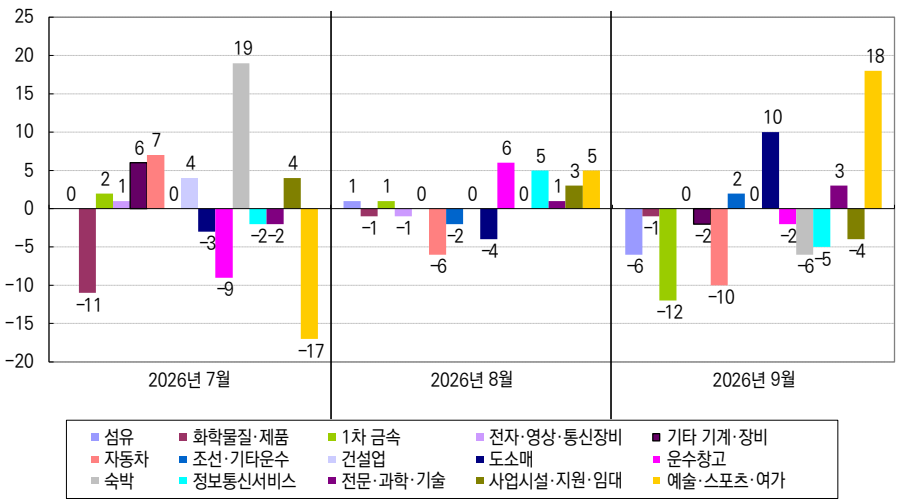


(b) 기업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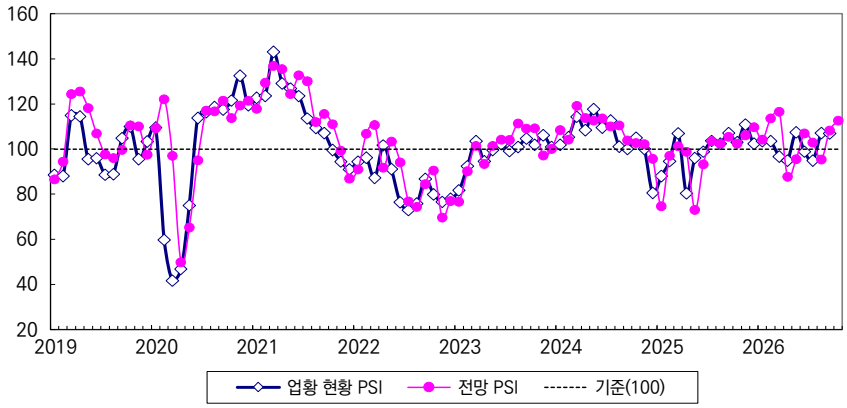
주요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전월비 변화폭 동향(업황 현황 BSI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산업연구원의 국내 제조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의 9월 업황 현황 PSI가 전월과 동일하게 107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고, 내수(106)는 3개월 만에 기준치 상회

국내 제조업 업황 PSI 추이



자료: 산업연구원.

국내 제조업의 주요 유형별 업황 PSI

	업황 현황 PSI					업황 전망 PSI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26년 7월	2026년 8월	2026년 9월	2026년 8월	2026년 9월	2026년 8월	2026년 9월	2026년 10월	2026년 9월	2026년 10월
제조업	95	107	107	(+12)	(0)	95	108	113	(+13)	(+5)
ICT 부문	102	122	120	(+20)	(-2)	108	116	118	(+8)	(+2)
기계 부문	103	97	100	(-6)	(+3)	92	102	113	(+10)	(+11)
소재 부문	76	95	102	(+19)	(+7)	85	100	100	(+15)	(0)

자료: 산업연구원.

- 10월 업황 전망 PSI는 113을 기록하면서 PSI 기준치를 상회 유지(108 → 113)하는 모습이고, 내수(111)·수출(118) 기준치 동반 상회 지속
- 주요 유형별 9월 업황 현황 PSI는 ICT부문(120)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당폭 상회하고, 소재부문(102)도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한편, 기계부문(100)은 기준치 수준
- 10월 업황 전망 PSI는 ICT부문(118)은 기준치를 상회(17개월 연속)하고, 기계부문(113)도 전월에 이어 100을 상회하는 반면에, 소재부문(100)은 기준치 수준

(2) 소비·고용

□ 8월 소매판매, 승용차 등 내구재와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감소 영향으로 하락

● (재화별) 소매판매액은 비내구재(전년동월비 2.4%)가 증가하였으나 내구재(-5.6%)와 준내구재(-1.3%)가 동반 감소하면서 감소

- 내구재는 가전제품과 통신기기가 증가하였으나 승용차가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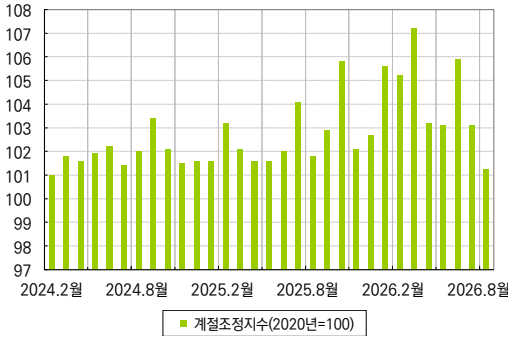
국내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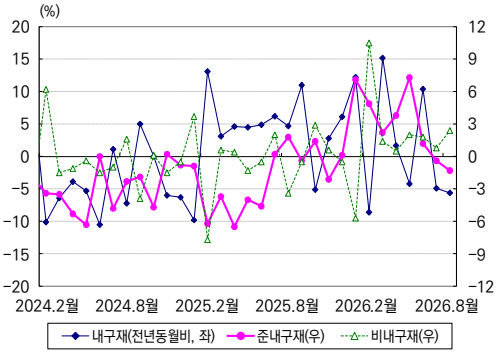
	2024	2025		2026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소매판매액	-1.9	0.3	0.9	3.2	2.4	4.0	-1.0	-0.3	-1.8
내구재	-3.6	3.8	1.2	6.0	3.0	10.4	-4.9	-5.6	-4.5
통신기기 및 컴퓨터	-3.4	1.6	-0.9	-6.1	0.8	14.9	-18.3	14.8	19.7
준내구재	-3.0	-2.1	-0.2	4.7	4.5	1.2	-0.4	-1.3	0.4
의복	-3.9	-0.9	1.0	7.5	7.9	3.1	0.8	0.1	1.4
비내구재	-0.8	-0.2	1.0	1.6	1.3	1.8	0.8	2.4	-1.6
음식료품	-1.4	-0.8	0.8	0.4	1.1	1.2	1.5	4.0	-2.3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 계절조정 기준.

(a) 소매판매액지수 추이



(b) 소매판매 재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준내구재는 의복과 가방 등이 증가하였으나 오락·취미·경기용품과 신발이 감소
- 비내구재는 차량연료, 서적· 문구, 화장품 등이 감소했음에도 의약품, 음식료품 등이 증가

● (소매업태별) 8월 소매업태별 판매는 백화점, 면세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편의점,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등이 감소

국내 소매업태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백화점	-2.4	0.4	4.7	10.2	14.8	13.5	9.0	1.9	-6.4
대형마트	-2.0	-4.4	-3.2	-8.2	-9.4	-13.8	-7.4	-2.8	-5.9
면세점	3.1	-14.1	-7.7	0.1	-0.3	2.2	13.4	2.1	-11.5
슈퍼마켓·잡화점	-1.9	-4.8	-2.4	-1.6	-0.7	0.2	-0.6	3.0	0.2
편의점	-0.1	-2.6	-2.2	0.9	3.6	3.4	-0.4	0.4	-0.9
승용차·연료소매점	-4.0	5.4	1.2	5.4	-2.4	4.0	-2.9	-11.2	-6.9
전문소매점	-4.2	0.5	2.2	3.5	3.2	3.0	-4.2	2.8	4.1
무점포소매	2.6	1.4	1.0	4.9	6.8	9.2	2.7	4.3	0.7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 전문소매점은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8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서비스업 증가 및 제조업·건설업 감소폭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6% 증가

● (산업별) 8월 전 산업 취업자 수는 제조업, 건설업 둔화 축소로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년동월비 0.6% 증가

● (연령대별) 65세 이상 연령층은 6.0%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15~29세 청년층은 4.0% 감소로 전월보다 감소폭이 축소

● (종사상 지위별) 8월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증가폭 확대와 비상용근로자의 감소폭 둔화 영향으로 상승

국내 고용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전 산업		0.6	0.7	0.7	0.6	0.1	-0.1	0.2	0.4	0.6
산업별	농림·어업	-1.9	-7.2	-8.4	-6.9	-7.0	-8.2	-6.4	-5.4	-7.4
	제조업	-0.1	-1.6	-1.2	-0.6	-2.2	-3.2	-2.2	-1.6	-0.9
	건설업	-2.3	-6.1	-5.2	-1.3	-2.0	-2.2	-3.4	-3.0	-1.7
	서비스업	1.1	2.5	2.5	2.1	1.3	1.3	1.5	1.2	1.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6	-0.1	0.5	-0.1	-0.8	-0.3	-0.6	0.0	-0.7
	전기·운수·통신·금융	4.2	2.6	2.7	2.1	2.2	2.0	3.2	1.7	2.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2	3.6	3.1	2.2	1.9	1.7	1.9	2.1	2.6
연령별	15~29세(청년층)	-3.7	-4.7	-4.1	-4.4	-5.9	-6.9	-5.4	-5.3	-4.0
	30~64세	0.1	0.1	0.0	0.2	-0.3	-0.4	-0.4	-0.2	0.3
	65세 이상	8.0	9.0	9.1	8.0	7.3	7.1	8.0	7.8	6.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1.0	1.2	1.2	0.7	-0.4	-0.5	-0.4	0.0	0.5
	상용근로자	1.1	1.7	1.5	1.0	0.1	0.0	0.1	0.4	1.1
	비상용근로자	0.5	-0.1	0.5	-0.3	-1.8	-1.8	-1.7	-1.4	-1.2
실업률(계절조정, %)		2.8	2.8	2.9	2.9	2.8	2.8	2.7	2.8	2.7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3) 투자

□ 8월 설비투자,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 8월 설비투자는 기계류(25.4%)가 늘었으나 운송장비(-4.3%)가 줄어 전년동월비 16.1% 증가
  - 전월비로는 기계류(1.6%)가 늘었으나 기타운송장비(-58.1%) 등 운송장비(-32.8%)가 크게 줄며 9.5% 감소

국내 설비투자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월	8월	전월비
부문별	설비투자	2.9	1.2	1.2	-6.2	9.8	12.8	24.6	16.1	-9.5
	기계류	2.0	0.7	3.1	-4.7	7.5	15.3	21	25.4	1.6
	일반기계류	4.9	-0.3	-0.2	-7.3	8.4	19.8	27.3	39.3	3.4
	전기 및 전자기기	-2.7	0.3	8.0	-1.7	4.3	7.5	10.9	10.1	-2.7
	정밀기기	0.7	9.3	11.4	4.0	11.7	14.8	18.4	8.1	0.2
	기타기기	-4.4	-4.5	-1.2	-6.4	1.2	3.6	6	7	-0.7
	운송장비	5.2	2.3	-3.4	-9.5	16	7.7	32.2	-4.3	-32.8
	자동차	-6.6	11.2	21.5	-2.1	30.1	16.5	1.2	-13.2	-8.3
	기타운송장비	31.3	-11.8	-36.6	-20.1	-5.6	-6.0	83.8	35.1	-58.1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7월과 8월은 잠정치.

국내 기계수주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월	8월	전월비
수요자별	국내수요	-3.1	1.8	-14.4	3.5	-2.8	19.5	31.6	42.2	33.8
	민간수요	-0.8	3.0	-10.4	-0.4	-1.0	22.6	33.4	49.9	30.7
	제조업	-2.7	3.9	-16.8	0.0	8.5	34.7	52.6	72.4	38.7
	[ICT 부문]	2.8	0.6	-22.1	-8.4	16.3	58.4	101	110.8	
	[기계 부문]	-5.8	19.0	-23.2	20.8	3.4	6.6	25.1	78.2	
	[소재 부문]	-48.2	4.3	7.1	61.0	-27.9	9.5	41.5	-34.1	
	비제조업	3.6	1.0	7.7	-1.5	-19.6	-6.5	-8.9	-6.6	1.3
	[건설업]	-7.7	34.3	30.3	-3.2	-32.3	2.9	2.2	59.4	
	[서비스]	8.7	-8.1	1.5	-0.8	-12.7	-9.0	-12.5	-22.6	
	유통서비스	15.2	-10.4	-2.7	-8.3	-25.3	-17.4	-28.7	-40.3	
	생산자서비스	-13.7	-4.3	17.1	35.5	11.4	19.9	55.9	49.3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7월과 8월은 잠정치.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는 제조업(72.4%)이 크게 늘어 전년동월비 42.2% 증가했고, 전월비로도 33.8% 증가

□ 8월 건설투자, 건설기성 증가 전환, 건설수주 감소폭 축소

● 8월 건설기성은 건축(0.1%)과 토목(4.8%)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비 1.3% 증가

- 전월비로는 건축(4.5%)이 늘며 1.9% 증가(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국내 건설기성액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월	8월	전월비
공종별	합계	-4.6	-16.5	-11.9	-15.1	-6.1	-4.9	-3.4	1.3	1.9
	건축	-6.6	-17.5	-13.0	-15.3	-8.3	-3.5	-7.2	0.1	4.5
	토목	2.0	-13.5	-8.6	-14.6	0.3	-8.6	8.8	4.8	-3.9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7월과 8월은 잠정치.

● 8월 건설수주액은 토목(0.4%)이 소폭 늘었으나 건축(-14.1%)이 줄어 전년동월비 10.6% 감소(감소폭 축소)했고, 전월비로는 19.1% 증가

국내 건설수주액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월	8월	전월비
공종별	합계	10.8	4.9	27.4	1.1	30.7	27.4	-26.3	-10.6	19.1
	건축	17.4	14.6	28.6	2.2	24.1	22.9	-15.4	-14.1	
	토목	-2.2	-17.7	24.1	-2.0	57.2	46.0	-47.3	0.4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7월과 8월은 잠정치.

(4) 산업생산

□ 8월 제조업 생산 감소 전환, 재고율은 100.9%로 상승

● 8월 제조업 생산은 ICT(0.9%)가 소폭 늘었으나 기계(-13.4%)와 소재(-0.3%)가 줄어 전년동월비 2.4% 감소

- 전월비로도 ICT(-3.5%), 기계(-14.0%), 소재(-0.9%)가 모두 줄며 5.1% 감소

● 8월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한 100.9%를 기록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4.0%포인트 하락한 70.8%를 기록

국내 주요 제조업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7월	8월	전월비
제조업 생산	4.2	3.0	8.1	-1.9	3.0	2.2	4.3	-2.4	-5.1
[ICT 부문]	17.0	10.1	18.2	-0.3	8.2	5.4	2.0	0.9	-3.5
[기계 부문]	-0.7	2.2	7.0	-2.9	0.8	1.9	9.6	-13.4	-14.0
[소재 부문]	-1.0	-1.7	1.4	-4.2	1.9	-1.6	0.6	-0.3	-0.9
재고율	104.5	97.2	95.4	97.7	95.1	98.2	96.7	100.9	
평균가동률	72.6	72.6	73.1	71.4	73.3	72.9	74.8	70.8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주: 7월과 8월은 잠정치. 재고율과 평균가동률은 증감률이 아닌 수준(%)이며, 재고율은 계절조정 재고지수를 계절조정 출하지수로 나누어 계산.

□ 8월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월비 4.6% 증가하며 증가폭 확대

●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생산자서비스(8.2%), 사회서비스(3.3%), 유통서비스(2.4%)가 증가한 반면, 개인서비스(-1.6%)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비 4.6% 증가

-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과학·기술(13.4%), 금융·보험(9.6%), 정보통신업(7.2%)이 증가한 반면,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점(-2.8%), 예술·스포츠·여가(-2.1%) 등이 감소

국내 주요 서비스업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서비스업 생산	1.3	2.0	2.3	4.2	4.6	5.5	3.4	4.6	0.5
개인서비스	-0.6	-1.1	-1.5	0.5	0.8	1.9	-2.5	-1.6	-0.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0.8	-4.2	-5.5	-0.6	-2.0	1.2	-2.4	-1.1	-1.4
숙박·음식점	-1.8	-0.9	0.0	0.3	1.7	1.2	-1.2	-2.8	-0.9
예술·스포츠·여가	1.8	-0.2	1.6	2.1	1.7	3.6	-3.9	-2.1	1.0
협회·수리·개인	-0.6	-1.4	-6.8	-0.2	-1.3	1.2	-3.6	2.0	1.3
유통서비스	1.8	3.1	2.7	4.1	3.6	4.8	1.2	2.4	0.0
도소매	-2.0	2.9	3.4	4.3	3.6	4.4	0.1	1.2	-0.7
운수·창고	8.4	3.5	1.5	3.7	3.6	5.4	2.8	4.2	1.3
생산자서비스	1.5	1.9	2.4	5.5	7.3	7.9	6.9	8.2	0.9
정보통신	2.6	1.5	0.8	-0.1	2.0	-0.6	0.3	7.2	4.7
금융·보험	2.4	2.9	3.4	8.9	9.0	10.7	9.8	9.6	-0.6
부동산	-2.8	-1.4	-1.7	0.4	2.0	2.3	0.1	-0.1	-1.6
전문·과학·기술	1.3	2.7	4.4	7.4	13.4	13.6	12.4	13.4	2.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0.6	-0.2	1.1	1.8	2.9	4.0	2.7	2.8	0.2
사회서비스	2.4	3.0	4.0	3.7	2.7	3.4	3.2	3.3	0.2
교육	0.0	-1.6	-0.9	-0.2	0.5	1.1	-0.5	1.5	1.8
보건·사회복지	3.7	5.4	6.5	5.7	3.8	4.6	5.0	4.2	-0.6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

- 전월비로는 부동산업(-1.6%), 수도·하수·폐기물처리(-1.4%) 등이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업(4.7%), 전문·과학·기술(2.3%) 등 다수 업종이 증가하여 전월비 0.5% 증가

(5) 물가

□ 9월 소비자물가, 석유류·서비스 가격 상승에도 통신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 소멸로 상승폭 축소

● 9월 소비자물가는 교통(7.7%)을 비롯하여 음식·숙박(2.8%), 주택·수도·전기·연료(1.9%), 식료품·비주류음료(1.0%) 등의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2.9% 상승

- 전월비로는 교통(-0.4%)과 음식·숙박(-0.4%)이 하락하였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1.4%)와 주택·수도·전기·연료(1.1%)가 상승한 영향으로 0.3% 상승

국내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소비자물가	2.3	2.1	2.1	3.0	2.9	2.8	3.1	2.9	0.3
근원물가	2.1	2.2	2.3	2.4	2.8	2.5	3.1	2.7	0.2
주요 품목별									
식료품·비주류음료	3.9	3.2	1.8	1.3	0.5	0.9	-0.5	1.0	1.4
주택·수도·전기·연료	1.7	1.6	1.3	1.7	1.9	1.8	1.9	1.9	1.1
교통	1.4	1.3	2.4	10.8	7.5	7.7	7.2	7.7	-0.4
음식·숙박	3.1	3.1	2.9	2.7	2.8	2.8	2.8	2.8	-0.4

자료: 국가데이터처.

□ 8월 생산자물가, 에너지 및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상승폭은 전월보다 확대

● 주요 품목별로 공산품(전년동월비 12.2%), 서비스(4.4%), 전력·가스·수도·폐기물(2.9%), 농림수산품(1.1%) 등이 상승하고, 이 중 전력·가스·수도·폐기물과 서비스는 전월보다 증가폭이 상승

국내 생산자물가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생산자물가	1.7	1.2	1.8	2.8	8.1	8.6	7.7	7.9	0.2
근원물가	1.6	1.1	1.8	3.3	8.2	8.6	8.0	8.2	0.0
주요 품목별									
농림수산품	4.5	1.3	5.2	2.5	3.5	4.8	0.7	1.1	3.8
공산품	0.9	0.6	1.7	3.4	12.8	13.2	12.2	12.2	0.0
전력·가스·수도·폐기물	3.2	3.1	-0.3	-1.2	0.2	1.3	1.8	2.9	0.9
서비스	2.2	1.7	2.2	3.0	4.5	4.9	4.0	4.4	0.0
업종									
자동차	1.9	0.4	0.4	0.6	0.7	0.7	0.5	0.3	0.2
기계	1.7	0.9	0.8	0.9	1.1	1.4	1.6	1.6	0.0
철강	-2.1	2.2	4.8	8.2	14.3	16.0	16.1	16.0	-0.1
정유	-0.2	-4.1	-1.5	0.7	58.5	51.4	39.0	40.1	-0.2
화학	0.6	-0.9	0.1	2.8	19.2	19.2	17.5	16.9	-0.4
섬유	0.5	-0.2	0.0	1.0	3.0	3.2	3.5	3.4	-0.2
가전	0.0	0.2	0.3	4.5	17.7	21.1	21.6	24.2	2.0
반도체	17.0	10.4	38.5	81.6	133.2	145.9	144.9	147.6	1.4
디스플레이	1.1	-0.4	-0.3	-3.0	2.3	6.5	3.2	1.2	-1.2

자료: 국가데이터처.

- 전월비로는 농림수산품과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상승하고 공산품과 서비스는 보합세 유지

● 업종별로는 반도체, 정유, 가전, 화학, 철강 등 대다수 업종이 상승

- 전월비로는 디스플레이, 화학, 정유, 섬유, 철강이 하락한 반면, 가전,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이 상승하고 기계는 보합에 그친 모습

(6) 수출입

1) 수출입·무역수지

□ 9월 수출, 16개월 연속 증가, 무역흑자 폭은 확대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83.5% 증가한 1,209억 달러이고, 수입은 26.0% 증가한 711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151억 달러 증가한 499억 달러 기록

-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석유화학, 이차전지, 선박, 철강, 화장품 등이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은 감소

●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6개월 연속 증가(38.0%)하고, 비에너지 부문도 증가(23.6%)하여 전체 수입 역시 증가

국내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4	2025	2026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수출	6,836 (8.1)	7,094 (3.8)	2,209 (38.4)	2,753 (57.2)	3,184 (72.2)	1,020 (70.4)	992 (63.3)	983 (68.7)	1,209 (83.5)
수입	6,318 (-1.7)	6,318 (0.0)	1,700 (11.2)	1,889 (22.4)	2,031 (25.0)	660 (30.0)	685 (26.4)	635 (22.4)	711 (26.0)
무역수지	518	776	509	864	1,153	359	307	348	499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1) ( ) 안은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2) 9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품목군별 수출은 ICT산업군, 기계산업군, 소재산업군, 신산업군 모두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ICT산업군) 반도체는 AI 수요에 따른 메모리 가격 지속 상승, 분기말 효과 등으로 전 기간 역대 최대실적 달성

  · 디스플레이는 전방 기업의 단가 인하 압박, 신제품 출시 연기 등으로 감소

주요 품목군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총수출	8.1	3.8	38.4	57.2	72.2	70.4	63.3	68.7	83.5
ICT산업군	39.4	17.4	128.3	178.9	211.3	197.3	175.2	203.5	203.5
기계산업군	10.9	3.4	45.4	71.6	91.0	88.3	77.6	83.9	83.9
소재산업군	19.9	6.0	80.1	118.3	143.9	137.8	116.8	140.9	140.9
신산업군	0.9	0.9	10.9	12.8	13.5	14.8	26.1	22.9	22.9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9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무선통신기기는 신제품 출시(갤럭시 Z8) 등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며 11개월 연속 증가
- 컴퓨터는 SSD 가격 상승으로 12개월 연속 증가
- 가전은 주력시장인 미국 주택거래 둔화 지속에 따른 대형가전 수요 감소로 감소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추석연휴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중고차 수출 부진으로 감소
  - 자동차부품은 부품 현지조달 확대와 명절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감소
  - 선박은 LNG선 등 전체 선박 인도량과 단가 상승으로 증가 전환
  - 일반기계는 중동사태로 인한 운임비·유가 상승에 따른 신규 발주물량이 줄어 감소
- (소재산업군) 석유제품은 중동사태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제품단가 상승으로 증가
  - 석유화학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가격 상승으로 증가 지속
  - 철강은 대미국 증가세 지속으로 증가 지속
  - 섬유는 중국, 아세안과 가격경쟁 심화, 조업일수 감소로 감소 전환
- (신산업군)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에도 불구, 전년동기 고실적 영향 등으로 감소 전환
  - 이차전지는 ESS 시장 확대와 광물가격 상승 등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중국	6.6	-1.7	49.5	78.2	113.0	91.9	96.4	119.4	122.7
미국	10.4	-3.8	35.8	64.4	99.0	78.6	69.3	89.2	137.0
일본	2.1	-4.4	11.3	18.4	16.6	14.7	11.1	13.0	25.3
아세안	4.5	7.4	36.4	68.8	80.8	85.5	74.0	75.4	92.6
EU(27)	-0.2	3.0	12.6	14.1	30.2	31.9	56.1	14.6	20.9
베트남	9.1	7.6	38.0	66.3	61.4	74.6	78.2	63.4	44.0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 9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지역별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EU, 일본, 인도 등 다수 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중남미, 중동, CIS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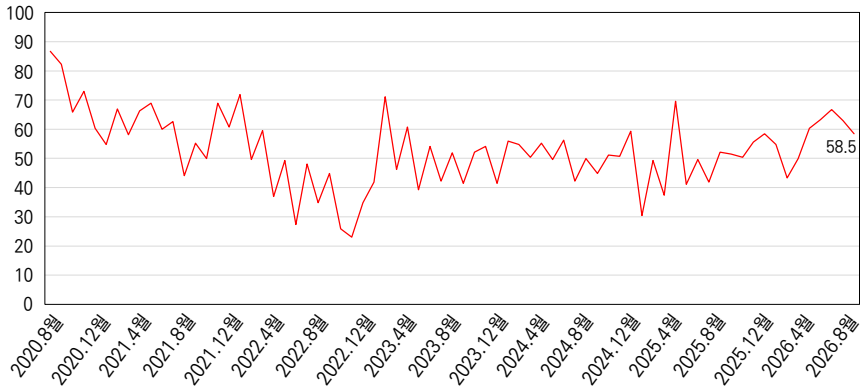
- 대미국은 반도체·컴퓨터 등 IT 품목, 자동차, 일반기계 등 20대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 대중국은 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증가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초과
- 대아세안은 디스플레이, 철강 등 일부 품목 부진에도 불구,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호조로 사상 첫 월 수출 200억 달러 초과 달성
- 대EU는 반도체, 자동차 등과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증가로 9월 역대 최대실적 달성

2) 수출경기·교역지표

□ 8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기준 50을 상회하여 향후 경기상승 국면 예고

● 8월 수출경기확산지수는 전월 대비 4.4포인트 하락하였으나, 기준 50을 상회하며 58.5포인트를 기록, 향후 수출 경기 국면을 긍정적으로 예고

국내 수출경기확산지수 추이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데이터처.
주: 수출경기확산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보다 크면 경기상승(확장) 국면, 작으면 경기하락(수축) 국면, 50일 때는 경기 전환점이며 실수출경기보다 수출은 약 7.4개월 선행.

- (원료 및 연료) 10개 품목 중 전월비 6개 품목이 상승한 가운데, 경유, 기타 석유제품, 기타 원료 및 연료 등은 상승한 반면, 금속광·벙커C유 등은 하락
- (경공업) 55개 품목 중 전월비 31개 품목이 상승한 가운데, 화학섬유 편직물, 직물제 의류, 기타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은 상승한 반면, 화학섬유, 신발류 등은 하락
- (중화학공업) 59개 품목 중 전월비 35개 품목이 상승하였으며, 의약품, 비철금속, 컴퓨터 주변기기, 메모리 반도체 등은 상승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수송장비 등은 하락

□ 8월 수출금액, 물량 확대로 인한 견조한 증가 흐름

- (수출금액) 8월 수출금액은 수출물량 증가폭이 확대되고 수출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비 68.7% 증가
- (수출물량) 8월 수출물량은 농림수산품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전년동월비 25.9% 증가
  - 공산품(26.0%)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농림수산품(-26.8%)은 감소폭 확대
- (수출물가) 8월 수출물가는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년동월비 42.4% 상승

국내 수출 물가 및 물량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수출금액	8.1	3.8	8.4	38.4	57.2	52.9	70.4	63.3	68.7
수출물량	5.5	4.9	6.2	23.1	19.0	14.8	29.6	20.1	25.9
농림수산품	7.2	6.3	2.6	8.3	14.3	18.1	10.0	-5.4	-26.8
공산품	5.6	4.9	6.2	23.1	19.0	14.7	29.6	20.1	26.0
수출물가	6.1	2.2	5.5	16.1	45.6	47.1	48.7	48.9	42.4
농림수산품	-2.3	7.3	8.9	11.3	33.8	32.4	40.5	32.6	28.4
공산품	6.2	2.2	5.5	16.1	45.7	47.1	48.7	48.9	42.4
석탄 및 석유제품	-2.4	-5.5	-0.3	21.6	82.8	89.7	57.1	62.0	65.9
화학제품	2.6	-1.0	-2.9	-0.6	26.3	28.4	26.6	21.2	14.0
1차금속제품	0.4	5.3	11.8	20.4	30.3	31.7	34.7	27.5	20.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9.2	5.9	16.7	47.3	103.2	103.9	117.7	122.4	113.2
전기장비	5.3	4.8	4.9	1.3	7.0	7.0	11.7	9.4	1.9
기계 및 장비	4.2	3.5	4.2	2.4	7.1	7.0	10.6	8.9	2.9
운송장비	5.6	1.9	-0.2	-2.4	5.0	5.5	9.5	8.9	1.9

자료: 한국은행.
주: 수출물가는 원화 기준, 8월은 잠정치.

- 농림수산품은 28.4% 상승하고,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13.2%), 석탄 및 석유제품(65.9%) 등을 중심으로 42.4% 상승

● (수입금액) 8월 수입금액은 전년동월비 22.4%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하락

● (수입물량) 8월 수입물량은 공산품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2.0% 증가

- 공산품(17.8%)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농림수산품(-3.4%)과 광산품(-1.7%)이 감소 전환

국내 수입 물가 및 물량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수입금액	-1.7	0.0	1.4	11.2	22.4	20.7	30.0	26.4	22.4
수입물량	-0.5	4.6	4.7	12.4	5.5	5.1	11.8	14.7	12.0
농림수산품	-3.0	-0.5	-3.7	3.3	-0.9	-3.6	-0.6	0.3	-3.4
광산품	-2.8	0.7	2.4	6.5	-10.4	-8.6	0.3	27.6	-1.7
공산품	0.2	5.7	5.3	13.9	12.6	11.1	17.4	11.9	17.8
수입물가	2.6	-0.4	1.0	7.0	22.3	25.4	20.9	18.8	15.6
원재료	0.4	-6.3	-6.1	8.6	32.6	39.8	25.0	24.2	26.6
농림수산품	5.2	7.7	4.9	-1.5	9.4	9.8	15.9	16.1	7.5
광산품	0.0	-7.7	-7.2	9.7	35.3	43.3	26.1	25.2	28.8
중간재	3.9	1.5	3.9	8.5	25.1	27.6	25.3	22.0	16.6
석탄 및 석유제품	6.8	-6.6	-11.2	8.5	59.8	73.1	38.9	35.9	44.5
화학제품	0.1	2.7	1.9	4.7	25.9	29.1	27.6	24.3	16.0
1차금속제품	1.5	5.5	11.7	18.1	31.0	33.0	33.9	27.9	21.5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3.3	0.0	10.4	16.9	23.5	23.2	27.9	23.8	15.7
전기장비	-0.1	1.5	-0.8	-2.8	7.6	7.9	11.2	12.3	5.9
기계 및 장비	2.6	7.9	6.0	1.9	2.4	2.8	6.0	4.4	-1.3
운송장비	1.8	6.8	8.9	6.8	6.8	7.3	9.4	5.5	0.1
자본재	2.6	3.7	3.8	1.7	4.7	4.8	7.9	5.8	0.7
소비재	3.8	3.9	4.9	2.8	6.2	5.9	8.8	7.8	2.2

자료: 한국은행.
주: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 8월은 잠정치.

● (수입물가) 8월 수입물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비 15.6%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축소

- 원재료가 광산품(28.8%)을 중심으로 26.6%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44.5%), 1차금속제품(21.5%), 화학제품(16.0%),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5.7%) 등을 중심으로 16.6% 상승하며 상승폭 축소

3

주요 산업별 동향

(1) 자동차

□ 8월, 파업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주요 지표 큰 폭 하락

● 9월 수출은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중고차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 수출 모두 감소하며 전년동월비 5.9% 감소

- 완성차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와 중고차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5.5%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
-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현지 생산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지조달 비중 증가가 지속되면서 7.3% 감소

● 8월 내수는 일부 업체 파업으로 공급 차질 영향과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수요 절벽으로 20.8% 큰 폭으로 감소

- 국내 생산차량 판매는 임단협 과정에서의 파업에 따른 생산 및 출고 차질로 인한 현대차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면서 전기차 판매 증가에도 28.5% 큰 폭으로 감소
- 수입차 판매는 기존 독일 3사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차 공급차질에 따른 반사이익과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 증가로 9.0% 증가

● 8월 생산은 하계휴가와 주요 업체 파업으로 생산 공백이 확대되면서 생산지수가 29.4% 큰 폭으로 감소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0	1.0	-4.6	0.2	0.1	12.6	10.3	-29.4	-
	생산(전기비)	-	-	-1.4	2.1	1.4	15.5	-4.6	-24.8	-
	출하	-2.0	0.8	-4.9	0.5	-0.8	10.1	8.8	-25.4	-
	재고	2.7	9.5	9.5	3.5	5.7	5.7	7.5	1.4	-
	가동률	-5.6	-1.5	-6.6	-2.1	-2.4	8.8	5.9	-32.1	-
	내수판매동향	-5.7	3.3	-4.2	5.3	0.1	9.5	0.5	-20.8	-
교역 동향	수출	-0.5	-0.2	-2.5	-2.0	-2.7	3.9	5.5	-25.2	-5.9
	수입	-9.4	3.2	0.4	14.9	12.5	36.0	-17.6	-8.9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업체별로는 임단협 관련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겪은 현대차는 54.8%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하계휴가 변동(7월 → 8월)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한국GM*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감소하며 생산물량은 전년동월비 35.8% 큰 폭으로 감소

* 한국GM의 경우 전년동월 부분파업으로 인한 실적 부진에 따른 기계적 반등으로 13.0% 증가

(2) 조선

□ 8월 생산지표 비교적 양호, 8월 수입과 9월 수출은 모두 증가

● 8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

-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1.9% 하락했지만, 생산은 13.0%, 출하는 12.7% 증가하여 생산활동은 양호

- 8월 누적 건조량(클락슨)은 750만CGT로 전년동기 840만CGT 대비 소폭 감소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7.3	25.5	22.8	-2.5	0.9	13.2	6.3	13.0	-
	생산(전기비)	-	-	11.1	-18.5	13.4	16.3	-1.6	-4.1	-
	출하	17.8	20.9	19.9	-5.7	-0.6	12.3	5.4	12.7	-
	가동률	8.9	35.8	48.5	5.2	7.8	13.7	5.3	-1.9	-
교역 동향	수출	17.7	24.1	25.3	13.7	23.3	12.7	46.8	-45.9	29.9
	수입	60.4	15.4	0.7	-4.9	-2.4	13.0	138.2	31.9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 9월 수출은 고가의 가스운반선과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전년동월비 29.9% 증가
  - 2022~23년 수주한 고가의 LNG운반선, 2023~24년 수주한 LPG운반선, 중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의 인도로 수출은 증가
- 8월 수입은 선박용 부품이 감소했으나, 화물선과 선박용 엔진의 증가로 31.9% 증가
  - 8월 선박용 부품의 수입이 16.6% 감소했지만, 규모가 큰 화물선 수입이 54.4%, 선박용 엔진이 13.6% 증가했고 모터보트의 수입도 증가
  - 중국, 미국, 라이베리아로부터 화물선과 일본으로부터 유조선의 유입이 증가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으로부터 선박용 엔진 수입도 증가
- 8월 누적 수주는 전 세계가 전년동기비 34% 증가한 5,970만CGT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940만CGT(17%), 중국은 4,540만CGT(57%), 일본은 120만CGT(-60%)를 차지
  - 8월까지 전년동기비 LPGC 426%, LNGC 147%, 유조선 164% 등 가스운반선과 유조선을 중심으로 발주가 크게 증가했으며, 수주 점유율은 중국 76.0%, 한국 15.7%, 일본 2.0%를 기록하여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
  - 9월 클락시 인덱스(ClarkSea Index)는 선종 대부분의 시황이 개선됐는데, 특히 유조선 운임이 사우디 동서(East-West) 파이프라인 손상으로 급등하며 크게 상승

* ClarkSea Index(달러/일): (2025년 연평균) 26,836 → (2026년 8월) 42,961 → (9월) 58,333

- 9월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3월 182.07에서 반등한 후 지속 상승하며 186.59를 기록

  * 클락슨 신조선가지수: (2024년 9월) 189.96 → (2026년 3월) 182.07 → (2026년 9월) 186.59

(3) 일반기계

□ 8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이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8월 생산은 내수출하, 설비투자, 국내기계 수주 증가가 지속되며 증가세(13.5%) 기록

- 내수출하, 설비투자 및 기계수주 각각 10.3%, 39.3%, 42.2% 증가

  * 일반기계 내수출하증가율(전년동월비, %): (2026년 6월) 17.2 → (7월) 9.1 → (8월) 10.3

  * 일반기계 설비투자증가율(전년동월비, %): (2026년 6월) 27.3 → (7월) 27.3 → (8월) 39.3

  * 국내기계 수주증가율(전년동월비, %): (2026년 6월) 53.3 → (7월) 31.6 → (8월) 42.2

- 재고율(재고/출하)은 재고지수(4.0%, 전월비)가 출하지수(2.8%, 전월비) 대비 더 크게 상승하며 전월비 1.4%포인트 상승한 116.1%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재고율(100.9%) 대비 15.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

  * 재고율(%): (2026년 6월) 117.8 → (7월) 114.7 → (8월) 116.1

- 가동률은 내수 및 수출 증가 영향으로 6.1% 증가

● 9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및 신규 발주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2% 감소

- 대미국 수출은 제조업 경기 확장세 및 인프라 투자 영향으로 증가세(28.1%) 지속

- 대중국 수출은 제조업 경기 개선 및 설비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세(9.1%) 지속

- 대EU 수출은 에너지 비용 상승 영향으로 감소세(-18.3%) 지속

- 대일본 수출은 제조업 생산 및 신규 수주가 둔화되면서 감소세(-10.2%) 기록

- 대인도 수출은 인프라 프로젝트 영향으로 증가세(42.0%) 지속

- 대중동 수출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영향으로 감소세(-37.1%) 지속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4	-0.8	-5.9	3.0	5.8	15.8	9.3	13.5	-
	생산(전기비)	-	-	-0.1	2.6	4.3	10.3	-0.3	3.1	-
	출하	-1.3	-0.2	-4.1	0.1	5.4	15.0	7.8	12.1	-
	재고	-6.3	0.0	0.0	6.2	9.6	9.6	6.9	10.6	-
	가동률	-7.1	1.5	2.3	7.4	2.6	5.2	9.0	6.1	-
교역 동향	수출	-4.2	-8.2	-7.2	-5.3	-0.8	7.2	5.7	1.8	-3.2
	수입	0.4	6.1	5.6	7.1	-0.6	1.9	9.6	3.8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 9월 주요국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10.6, 28.1%), 중국(5.0, 9.1%), EU(4.1, -18.3%), 일본(1.6, -10.2%), 인도(2.3, 42.0%), 중동(1.6, -37.1%)

● 8월 수입은 설비투자 증대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8% 증가

- 주요 품목별로는 식품가공포장기계(+84.7%), 공구(+18.8%), 건설광산기계(+15.8%)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기계(-32.4%), 압연기, 용접기 및 주조설비(-28.6%), 제지인쇄기계(-8.0%) 등은 감소

(4) 철강

□ 8월 생산 증가 지속, 9월 수출 대미 수출 확대가 지속되며 증가세 유지

● 8월 생산은 수출 확대 및 조선과 대형 건설·인프라용 수요 지속에 따른 내수 개선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9% 증가

- 생산 확대로 가동률지수는 전년동월비 4.3% 증가, 반면 8월 하계휴가 및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월비 생산은 2.3% 감소

- 품목별로는 조선·인프라용 중후판의 전년동월비 생산이 증가 전환(7.2%)하였으며, 봉형강류 역시 수출 확대 및 내수 개선으로 전년동월비 5.0% 증가

● 9월 수출은 대미 수출증가세 지속과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3.3% 증가

- 9월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982달러로 전년동월비 15.8% 상승
- 아세안, 중남미, 인도 등 신흥국향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호조 및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미국(122.2%), 아세안(-9.2%), EU(8.9%), 중남미(-4.4%), 일본(15.4%), 인도(-25.2%)

● 8월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 및 전년도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1.4% 증가

- 8월 톤당 평균 수입단가는 872.1달러로 전년동월비 6.1% 상승
- 대중국 수입은 수입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 영향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며,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3.7	-7.1	3.1	0.2	0.4	5.8	3.9	-
	생산(전기비)	-	-	-3.5	2.4	1.2	1.6	6.1	-2.3	-
	출하	-3.6	-3.2	-8.7	1.5	1.5	2.8	2.5	-1.6	-
	재고	8.1	-0.7	-0.7	-2.4	-6.0	-6.0	-1.3	6.9	-
	가동률	-1.7	-4.0	-7.6	3.5	1.1	1.1	6.1	4.3	-
교역 동향	수출	-4.9	-7.6	-14.0	-2.6	-2.0	9.1	4.3	7.9	3.3
	수입	-11.5	-16.8	-12.6	1.0	1.5	4.0	-5.7	11.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 특히 전년도 중국산 열연후판 및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수입이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중국산 중후판과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물량이 각각 10.2%, 51.0% 증가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국(1.0%), 일본(31.3%), 대만(13.3%), 인도네시아(20.0%), 독일(192.1%), 베트남(55.4%), 인도(58.1%), 미국(15.6%)

  *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열연강판(-6.0%), 중후판(38.9%), 냉연강판(34.8%), 아연도강판(-75.1%), 도금강판(-77.9%), 전기강판(-4.5%), 선재(5.5%), 봉강(90.1%), H형강(-15.4%), 철강관(22.2%), 철근(109.3%), 강반제품(9.6%)

(5) 정유

□ 9월 수출, 수출 물량 감소에도 유가 및 정제마진 급등으로 전년동월비 72.0% 증가

● 8월 생산은 정제마진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 조달 제약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3.1% 감소

- 내수는 운송용 및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전반적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15.8% 감소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LPG(3.7%), 휘발유(-4.7%), 윤활유(-9.1%), 나프타(-14.1%), 아스팔트(-15.4%), 경유(-24.2%), 벙커C유(-72.2%), 항공유(-80.8%)

- 수출물량은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및 내수 우선 공급 정책과 호르무즈 재봉쇄 및 중동 산유량 급감으로 인한 원유 도입 물량 감소로 전년동월비 2.2% 감소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항공유(18.0%), 윤활유(5.8%), 경유(-3.2%), 휘발유(-7.7%), 아스팔트(-32.1%), 벙커C유(-59.8%), 나프타(-69.7%)

● 9월 수출액은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72.0% 증가한 72억 2,000만 달러를 기록

- 수출물량은 정부의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로 6.9% 감소한 반면, 수출단가는 국제유가의 재급등 및 정제마진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83.9% 증가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8	-0.3	2.3	6.3	-15.3	-10.4	-6.6	-3.1	-
	생산(전기비)	-	-	-1.6	1.5	-16.6	6.8	4.9	1.6	-
	출하	4.2	-2.6	-2.0	4.9	-17.2	-12.6	-4.4	-5.4	-
	재고	-5.8	0.2	0.2	11.3	2.3	2.3	-12.4	-4.4	-
	가동률	1.8	-0.3	2.2	6.2	-15.3	-10.4	-6.8	-3.2	-
	내수판매동향	3.5	-2.8	-4.5	-3.2	-19.9	-12.7	-17.2	-15.8	-
교역 동향	수출	-3.2	-9.7	2.6	33.0	42.4	44.9	43.6	65.4	72.0
	수입	8.2	-15.3	-22.5	-12.7	30.5	23.1	-13.3	-21.7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상승률): (2025년 9월) 70.0 → (2026년 9월) 113.7(62.4%)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톤): (2025년 9월) 687 → (2026년 9월) 1,263(83.9%)
* 국제 휘발유/경유 스프레드(달러/배럴, 상승률): (2025년 9월) 79.5/89.1 → (2026년 9월) 136.1/177.7(71.2%/99.4%)
*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5년 9월) 42.0 → (2026년 9월) 72.2(72.0%)

- 주요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일본으로의 수출도 증가로 전환

* 지역별 수출액 증가율(%): EU(241.8), 아세안(64.2), 일본(49.1), 중남미(48.9)

(6) 석유화학

□ 8월 생산은 횡보, 9월 수출액은 수출단가 상승 효과로 증가세 지속

● 8월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량과 재고량은 전년비 각각 0.3%, 0.5% 증가한 반면, 출하량은 3.4% 감소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	-1.3	-4.4	0.1	-1.0	3.4	-0.1	0.3	-
	생산(전기비)	-	-	-1.9	1.2	-0.4	6.3	-0.4	0.7	-
	출하	2.6	-1.5	-5.2	0.8	-0.2	-6.2	-5.3	-3.4	-
	재고	1.3	0.1	0.1	-1.6	3.3	3.3	3.5	0.5	-
	가동률	1.4	-2.0	-3.1	1.4	-2.1	0.0	-3.2	-3.5	-
교역 동향	수출	5.1	-10.0	-12.5	-1.2	12.2	17.7	10.9	12.7	5.1
	수입	2.0	-3.9	-3.8	-1.3	41.1	39.1	10.0	12.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 제품'(MTI 21) 당월.

- 동월 생산시설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3.5% 하락

  * 중국과 한국(샤힌 프로젝트)발 공급량 확대가 예정된 만큼, 각 석유화학 기업들은 제품가격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 가동률을 하향 조정할 전망

-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는 8월에 208달러를 기록, 전월 대비 약세에서 반등

  * 생산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제품 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9월 수출액은 단가 상승 효과가 물량 감소 효과를 넘어서며 전년비 5.1% 증가

- 국제유가와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비 각각 62%, 30% 상승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5년 9월) 70.0 → (2026년 9월) 113.7(+62.4%)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2025년 9월 1~25일) 1,088 → (2026년 9월 1~25일) 1,415 (+30.0%)

- 중동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나프타 등 주요 원료가격이 상승

- 국내 수요 대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며 수출 물량은 전년비 감소

- 중국 내 생산시설 신증설 설비가 가동되며 중국향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0.6% 감소

-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로 건자재용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해 전월비 18% 증가

  * 중국 -0.6%, 아세안 +17%, 인도 +18%, 중동 4%

(7) 섬유

□ 생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도 감소 전환

● 8월 생산은 편물·봉제의복의 감소폭이 줄었으나 직물이 감소 전환하고 원사·가공 부문 약세가 이어지며 전체 생산은 전월 수준의 부진 지속

- 의류 판매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봉제의복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편물도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일부 품목에서 개선 움직임
- 중국산과의 가격경쟁 및 수요 부진으로 화학섬유업계의 생산 부담이 이어졌으며, 방적사·염색가공·기타 섬유제품도 감소폭이 확대되며 회복이 제한
  * 화학섬유(전년동월비): (6월) -6.1% → (7월) -1.8% → (8월) -3.2%
  * 방적사(전년동월비): (6월) -8.7% → (7월) -3.5% → (8월) -7.2%
  * 직물(전년동월비): (6월) 4.6% → (7월) 4.8% → (8월) -3.6%
  * 편물(전년동월비): (6월) -8.2% → (7월) -11.4% → (8월) -9.7%
  * 염색가공(전년동월비): (6월) -14.5% → (7월) -6.1% → (8월) -12.0%
  * 기타 섬유제품(전년동월비): (6월) -4.1% → (7월) -5.8% → (8월) -17.7%
  * 봉제의복(전년동월비): (6월) -14.0% → (7월) -16.6% → (8월) -2.8%
- 국내 의류 소매판매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온라인쇼핑 거래는 감소폭이 축소
  * 의류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6월) 5.6% → (7월) 3.4% → (8월) 2.6%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가율(전년동월비): (6월) 0.3% → (7월) -6.6% → (8월) -4.4%

● 9월 수출은 F/W 의류 등 완제품 수요가 이어졌으나, 소재 부문의 중국·아세안 업체와의 가격경쟁 심화와 조업일수 감소가 겹치며 감소 전환

- 국내 패션 플랫폼을 통한 중국·미국 판로 확대가 이어졌으나, 통관 기준 패션의류 수출은 감소 전환
  * 섬유류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2025년 9월) 9.4(+8.6%) → (2026년 9월) 8.8(-6.8%)
  * 9. 1~25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 (아세안) 2.4(-0.6%), (중국) 1.3(+6.8%), (미국) 1.1(+8.0%)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5	0.2	0.1	-1.3	-8.1	-6.8	-6.9	-7.0	-
	생산(전기비)	-	-	2.5	-2.9	-8.5	-9.2	-5.2	-5.2	-
	출하	-7.7	-2.1	-2.2	-1.8	-2.8	-0.9	-3.0	-2.9	-
	재고	-5.1	-2.8	-2.8	-3.9	-7.5	-7.5	-7.5	-7.5	-
	가동률	-2.9	-4.6	-8.2	-4.5	-1.8	2.0	2.2	-7.8	-
교역 동향	수출	-4.5	-6.1	-8.1	-1.6	3.4	11.3	3.5	0.2	-6.8
	수입	-0.4	-2.2	-2.3	0.4	7.5	13.5	-3.1	6.3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8) 가전

□ 선진국 수요 부진으로 수출 감소 심화

- 8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1.4% 감소
  - 8월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내수가 전년동기비 증가했으나, 조명기기 재고 누적 및 판매 부진에 따라 전체 가전 생산이 크게 감소
  - 반면, 영상음향기기 분야는 판매량 호조로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
  - 판매량 부진으로 재고는 전년동월비 16.9% 증가했고 가동률은 9.0% 하락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2% 감소
  - 주택거래 둔화, 중동사태 지속 등으로 대형가전 수출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미국과 EU 수출이 감소하여 수출 감소세가 심화
  - 대아세안 수출은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호조

    * 9. 1~25일 수출액 증가율(전년동월비): 미국 -18.4%, EU -10.4%, 아세안 +12.6%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3.2	-6.8	-16.0	-10.4	-4.0	10.1	4.2	-11.4	-
	생산(전기비)	-	-	-8.9	-0.7	4.1	21.7	4.9	-14.6	-
	출하	-4.5	-3.1	-11.6	-12.1	-6.7	6.4	2.7	-12.2	-
	재고	7.9	-0.1	-2.4	5.9	11.0	18.4	15.4	16.9	-
	가동률	3.1	-5.2	-11.2	-8.2	-4.3	7.2	1.4	-9.0	-
교역 동향	수출	0.4	-8.8	-8.7	-9.8	-14.6	0.0	-5.4	-1.5	-13.2
	수입	2.8	-1.1	-4.8	-0.8	0.6	7.3	-4.5	3.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1)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8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3.4% 증가
  - 수년간 부진했던 내수가 반등함에 따라 수입은 증가로 전환
    * 가전제품 판매지수(불변지수): (2024년 8월) -6.0% → (2025년 8월) -12.5% → (2026년 8월) +6.7%
  - 최대수입국인 중국 수입은 전년동월비 3.1% 감소했으나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과 역수입 증가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각각 45.9%, 9.8%, 30.2% 증가
  - 품목별로 살펴보면 컬러TV(+44.8%), 진공청소기(+34.0%), 비디오카메라(+25.5%), 세탁기(+27.8%), 헤어드라이어(+27.8%), 전기밥솥(+105.0%)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9) 무선통신기기

□ 9월 수출은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

- 갤럭시 Z8, 아이폰 18 프로 등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 및 판매 호조로 휴대폰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모두 증가

- 9월 수출 21억 4,000만 달러 중 휴대폰 완제품 수출은 5억 9,000만 달러, 부품 수출은 14억 8,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동월비 각각 40.1%, 21.8% 증가

  * 9월 1~25일 대중국 수출이 69.9% 급증한 가운데, 미국 및 EU로의 수출 역시 각각 27.8%, 42.5% 증가

  * 갤럭시 Z8 시리즈의 글로벌 사전판매는 전작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1], 삼성전자는 2분기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MX·NW 사업부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하반기 프리미엄 판매 확대에 주력할 전망[2]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 둔화 속 애플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로 프리미엄·폴더블 중심 경쟁이 더욱 심화

- 애플은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듀오(256GB 1,999달러, 10월 23일 출시)를 공개했으며[3], IDC(2026. 8. 26)[4]는 이로 인해 2026년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이 12.6% 증가한 2,290만 대로 유일한 성장 세그먼트가 될 것으로 전망

  * 아이폰 18 프로는 폴더블 대기 수요 등으로 국내 사전판매가 예년보다 둔화되었으며[5], 기본형 아이폰 18은 2027년 봄 출시 예정

  * 트렌드포스(2026. 9. 9)[6]는 멤플레이션에 따른 선구매 증가로 2026년 생산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교체 주기 장기화로 인하여 2027년 시장 악화를 예상함. 한편, 모바일 D램 계약가격 상승폭이 올해 3분기 8~13%로 축소되고 4분기에는 고점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8월 생산 및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3.2%, 9.8% 증가하고 가동률은 4.3% 상승했으며, 재고는 37.8% 증가

- 7월 신제품 출시에 대비한 생산 급증의 기저효과로 8월 생산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출하 증가와 함께 재고 증가율이 7월(57.3%) 대비 축소

---

1) 연합뉴스(2026), "갤럭시 Z8 사전판매 30%↑…폴드8이 글로벌 흥행 이끌었다", 8월 8일.
2) 파이낸셜뉴스(2026), "스마트폰 불황 맞아?…'여권폰'에 움직인 소비자들", 8월 16일.
3) ZDNet Korea(2026), "애플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내달 23일 국내 출시…329만 원부터", 9월 10일.
4) IDC(2026), "Smartphone Shipments Set for Record 16.7% Drop in 2026, as the Memory Crisis Hits Full Force", Aug. 26.
5) 뉴스1(2026), "애플, 아이폰18 프로 사전판매 수요 '덤덤'…아이폰 듀오 기다리나", 9월 16일.
6) TrendForce(2026), "Mobile DRAM Industry Analysis - 3Q26, Sep. 9; Mobile DRAM Contract Price 3Q26", Aug. 3.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4.3	0.8	-1.5	7.4	25.6	24.9	18.8	3.2	-
	생산(전기비)	-	-	0.5	3.2	13.0	-2.9	7.9	-17.2	-
	출하	4.5	-1.7	-4.4	2.0	20.6	57.4	0.8	9.8	-
	재고	-18.8	23.0	23.0	31.8	40.3	40.3	57.3	37.8	-
	가동률	9.4	6.9	4.7	11.1	31.2	28.0	27.4	4.3	-
교역 동향	수출	11.1	0.4	2.6	40.1	22.7	51.7	51.1	21.2	23.4
	수입	-4.6	2.5	2.9	48.3	24.3	42.9	34.2	45.8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삼성전자의 갤럭시 Z8 추가 생산(100만 대) 및 아이폰향 부품 수출 증가가 예상되어 4분기에도 완만한 생산 증가 예상

● 8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45.8% 증가한 13억 4,000만 달러를 기록

- 1~7월 누계 수입은 85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35.5%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34.1%)과 비슷한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7월 기준 스마트폰 완제품 수입(7억 9,000만 달러, 82.4% 증가)이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49.8%)을 차지
- 8월 수입은 7월(15억 9,000만 달러) 대비 감소했으나, 전년동월(9억 2,000만 달러) 대비 40%대 증가율을 유지했으며, 애플 신제품 출시 및 삼성전자 역외 생산물량의 역수입 구조의 고착화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입 증가세 지속 예상

(10) 반도체

□ 9월 수출,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 돌파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62.8% 증가한 60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호조세 지속
  - 반도체 수출은 2025년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
  -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폭은 줄었으나 상승세는 이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 성장세 지속

    * DDR5 16Gb 고정가격 추이: (2026년 7월) 45.0달러 → (8월) 46.5달러 → (9월) 48.0달러
  - 지역별로는 AI 관련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세 유지
  - 우리 기업의 생산능력 확장 속도가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당분간 반도체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수출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국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생산 증가에 따른 중간재로 사용되는 제품이 늘어나 반도체 수입도 대폭 증가
  - 2분기부터 반도체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 AI 투자 확산으로 인한 시스템반도체 수입 증가와 수출 증가에 따라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에서 이동이 확대된 결과로 추정
  - 수입액 증가는 물량 확대보다 반도체 단가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8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4% 증가하였으나 전월비는 2.2% 감소하여 수출액 급증에 비해 생산 증가세는 제한적인 상황
  - 지난 2월 생산이 급증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불안한 모양새
  - 수출 금액 증가에 비해 생산과 출하 등의 증가폭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판매가격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0.4	12.9	0.2	9.7	5.4	1.8	0.3	1.4	-
	생산(전기비)	-	-	-12.7	13.8	-0.8	4.1	0.4	-2.2	-
	출하	14.5	13.3	1.4	13.3	5.5	2.8	-3.6	2.5	-
	재고	-21.6	-34.7	-34.5	-17.3	3.0	2.4	9.6	8.8	-
	가동률	10.9	-2.2	-12.1	0.3	-5.6	-7.3	-8.6	-7.1	-
교역 동향	수출	43.9	22.2	36.0	139.1	181.7	199.5	178.8	209.1	262.8
	수입	15.8	4.9	1.7	25.7	60.6	65.4	57.9	71.6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7월 및 8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9월 수출은 추정치.

(11) 디스플레이

□ 9월 수출은 OLED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며 2개월 연속 감소, 8월 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출하는 감소 전환하고 재고 증가폭은 확대

● 9월 수출은 15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9.5% 감소하여 전월(-4.7%)보다 감소폭 확대

- OLED 수출은 13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11.0% 감소하여 8월(-7.7%)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감소액 약 1억 7,000만 달러 중 약 1억 6,000만 달러를 차지
- 모바일용 OLED 주요 고객사의 단가 인하 압력과 일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일정 지연을 수출 감소 요인으로 파악
- 수출은 전년동월비 6월 37.0%, 7월 2.4% 증가한 이후 8월 감소로 전환하고 9월 감소폭 확대

● 8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1.0%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되고, 출하 감소와 재고 증가가 동반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비 증가율,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9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9	2.2	1.0	5.3	3.0	9.4	7.8	1.0	-
	생산(전기비)	-	-	-1.9	1.8	-5.8	-10.4	20.5	-2.3	-
	출하	4.5	-1.3	-1.9	2.4	0.5	9.3	1.7	-5.1	-
	재고	-1.5	7.8	7.8	-1.3	2.5	2.5	15.3	16.2	-
	가동률	16.4	2.6	4.8	5.1	4.0	12.0	10.2	2.1	-
교역 동향	수출	0.9	-9.4	-3.7	5.5	13.4	37.0	2.4	-4.7	-9.5
	수입	5.7	-16.7	-19.2	15.8	15.8	23.1	-10.7	2.4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주: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생산 증가율은 6월 9.4%, 7월 7.8%, 8월 1.0%로 둔화하였으며, 전월비로는 7월 20.5% 증가에서 8월 2.3% 감소로 전환
- 출하는 전년동월비 5.1% 감소하여 전월(1.7%)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고, 재고 증가율은 전월 15.3%에서 16.2%로 확대
-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2.1%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6월 12.0%, 7월 10.2%에 이어 축소
- 8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2.4% 증가하여 전월(-10.7%)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4

이슈 포커스

(1) EU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일반기계 산업 영향

□ EU는 2027년 1월 20일부터 기계류 규정을 전면 적용하여 디지털·지능형 기계의 안전 요건을 구체화

● EU 기계류 규정은 기존 기계류 지침(2006/42/EC)을 대체하는 법령

- 이번 개정에서는 CE 표시와 위험성평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자율기능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7)]
- 2023년 7월 19일 발효된 내용과 2027년 1월 20일 전면 적용되는 내용은 서로 구분되며, 내년 적용 전 기존 지침에 따라 EU 시장에 적법하게 최초 출시된 제품의 후속 유통은 허용[8)]

□ 제3자 적합성평가 의무는 품목과 안전기능에 따라 구분되며, 모든 품목에 인증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님.

● 부속서 I의 A에 해당하면 EU 회원국이 지정·통지한 적합성평가기관(Notified Body)이 관여하는 절차를 적용

---

7) European Commission, "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2026. 7. 27 통합본), 제51조·제54조 및 부속서 III.
8) Regulation (EU) 2023/1230, 제52조·제54조.

EU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관련 근거
안전 관련 사이버보안	외부 연결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안전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데이터를 우발적·고의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부속서 III 1.1.9·1.2.1
자율·학습기능	학습 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 설정의 변경을 방지하고, 정의된 작업·이동 범위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	부속서 III 1.2.1
적합성평가	부속서 I 의 A·B 분류와 비등재 여부에 따라 제3자 관여 및 내부생산관리 절차를 구분	제25조·부속서 I
실질적 변경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물리적·디지털 변경을 수행한 자에게 해당 기계의 제조자 의무 부여	제3조(16)·제18조
디지털 문서	사용설명서와 EU 적합성선언의 디지털 제공을 허용하되 접근성·보존기간 등 조건 부과	제10조 제7·8항
기술문서 보관	시장 출시 또는 사용 개시 후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을 최소 10년간 보관	제10조 제3항

자료: Regulation (EU) 2023/1230의 해당 조항을 기반으로 작성.

품목 분류별 적합성평가 방식

	대표 품목	적합성평가 내용
부속서 I A 6개 범주	탈착식 동력전달장치·보호장치, 차량 정비용 리프트, 휴대용 화약식 고정·충격기계, 자체진화형 기계학습 안전부품·내장 안전시스템	제3자 관여 필수 EU 형식검사+형식적합성 또는 전면적 품질보증 또는 단위검증
부속서 I B 19개 범주	일정 조건의 수동 투입·배출식 금속 냉간가공 프레스, 수동 투입 또는 배출식 플라스틱·고무 사출·압축성형기, 일부 목공기계, 안전 논리장치 등	관련 안전요건 전체를 포괄하는 조화표준·공통규격 적용 시 내부생산관리 가능, 그 밖에는 제3자 관여 절차 적용
부속서 I 비등재	부속서 I의 제품·안전시스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 및 관련 제품	내부생산관리(Module A) 적용, 필수 안전요건·기술문서·EU 적합성선언·CE 의무는 유지

자료: Regulation (EU) 2023/1230 제25조 및 부속서 I .

주: 1) 부속서 I A 제6호는 별도 출시되지 않은 내장 안전시스템에 한정되며, AI 사용 자체가 기계 전체의 A 분류를 의미하지는 않음.
2) 부속서 I B 제9호의 금속 냉간가공 프레스는 수동 투입 또는 배출식이면서 가동 작업부의 이동거리가 6mm를 초과하고 속도가 30mm/s를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해당하며, 프레스 브레이크를 포함함.

- 부속서 I의 B에 해당하면 관련 필수 안전요건 전체를 포괄하는 조화표준 또는 공통규격에 따라 설계·제작한 경우 내부생산관리가 가능
- 품질검사나 생산계획 등 공정 최적화에 AI를 활용하는 경우와 AI 기반 제품 자체 기능이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 후자의 안전부품·내장 시스템이 A의 해당 범주에 포함[9]

□ 판매 이후 개조와 소프트웨어 변경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제조자·통합업체 간 책임과 문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

● 제품 출시 이후 제조자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변경이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거나 기존 위험 수준을 높이고 법정 보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을 수행한 기업에 의무를 부여[10]

- 법정 보호조치는 기존 안전제어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방호장치·보호장치의 추가 또는 안정성·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보호조치로, 모든 수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음.
- 시장 출시 또는 사용 개시 이후 업로드된 안전 소프트웨어의 버전·개입 데이터는 해당 업로드 후 5년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
- 자체진화형 행동·논리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의 소프트웨어 기반 안전시스템에는 안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 데이터의 수집 후 1년 보존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5년 추적 로그와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

□ 2027년 1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EU 기계류 규정은 일반기계 기업의 설계·검증 및 변경 관리 부담에 영향을 미치며, 부담의 정도는 제품의 기능과 기존 대응 수준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

● 금속가공기계는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와 외부 연결 기능을 갖춘 장비를 중심으로 훼손 방지와 변경 추적 요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어시스템 보완·검증 및 기록관리 비용이 추가될

9) Regulation (EU) 2023/1230 부속서 I 제5호 및 6호.
10) Regulation (EU) 2023/1230 제3조.

일반기계 주요 분야의 예상 영향과 대응 방안

	예상 영향	대응 방안
금속가공기계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와 외부 연결 기능을 갖춘 장비에서 기존 설계·기록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어시스템의 재설계·검증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추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 존재	기존 설계·검증자료와 새 요구사항의 차이를 확인하고, 보완 대상 모델과 제어기능을 우선 선정
사출·성형기계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보호와 변경 추적 등 신규·변경 요건을 기존 설계·검증체계로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서는 보완 설계와 검증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3자 평가의 추가 필요성은 제품별 적용 표준과 기존 평가 경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조화표준·공통규격의 포괄 범위와 내부생산관리 유지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외부 평가 일정을 조기에 확보
건설 및 운반하역기계	자율이동 제품의 안전제어·원격감독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설계·시험에 따른 개발비와 출시 준비기간 증가 가능성 존재	실제 운행·작업조건을 반영한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안전기능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개발 일정에 반영
농업기계 및 동력전달장치	탈착식·기계식 동력전달장치·보호장치를 기존 지침에 따라 제조자 자체 적합성평가 절차를 이용해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해 온 경우, 제3자 평가 수수료와 심사 대응비용이 추가되고 수출 일정의 외부 평가 의존성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기존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추가 절차·비용을 산정하고, 평가기관과 시험·심사 일정을 사전 협의
로봇 및 스마트기계	기계학습 기반 자체진화형 안전기능을 사용하는 제품은 해당 안전부품·내장 시스템의 제3자 평가와 검증자료 확보로 개발비와 상용화 준비기간이 늘어날 가능성 존재	설계 초기에 평가대상 안전기능과 시스템 범위를 특정하고, 안전성 검증계획과 제품개발 일정을 연계

것으로 예상

- 사출·성형기계도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보호와 변경 추적 등 신규·변경 요건에 대한 대응 수준에 따라 설계·검증자료의 보완 부담이 발생 가능
- 건설·운반하역기계는 자율이동 제품의 안전제어와 감독 기능에 관한 요건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기능의 보완과 추가 시험이 필요한 기업에서 개발비와 EU 시장 출시 준비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
- 탈착식 기계식 동력전달장치와 그 보호장치가 제3자 평가 필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업기계·동력전달장치 분야에서는 기존 지침에서 허용된 제조자 자체 적합성평가 절차를 이용하던 경우, 평가 수수료와 심사 대응비용 추가가 예상
- 로봇·스마트기계는 기계학습 기반 자체진화형 안전부품이나 해당 내장 안전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3자 평가와 안전성 검증자료 확보에 따른 개발비 및 상용화 준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 기업의 대응은 일률적인 추가 인증보다 기존 설계·평가체계와 새 요구사항 간 차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보완과제를 개발·공급 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김태영 | 전략산업분석실 부연구위원





KIET 산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FAX. 044-287-3333 http://www.kiet.re.kr